

익산시청 펜싱팀 최지영,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

익산시청 펜싱팀 소속 최지영 선수가 국제펜싱연맹(FIE) 사브르 월드컵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지영 선수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한국 여자 사브르 국가대표로 출전해 서울특별시장 전하영, 안산시청 김갑미·서지연 선수와 함께 단체전에 나섰다.

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한국시간) 한국 대표팀은 16강에서 홍콩을 꺾은 데 이어 8강에서 폴란드를 45대35로 제압했다. 이어 4강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45대44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프랑스에 36대45로 아쉽게 패했지만, 세계 강팀들을 연이어 제압하며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지영 선수는 2023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이어오며 국제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수한 경기력을 입증하며, 올해 예정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앞두고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읍시보건소, 찾아가는구강이동교실 운영

정읍시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이 없어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치과 공중보건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구강이동교실'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치과 공중보건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운영팀이 오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개월간 고부면 20개 마을과 덕천면 2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강보건 이동버스를 활용한 출장 검진을 통해 개인별 구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상담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구강 건강 상태에 따라 불소도포, 스케일링(치석 제거) 등 예방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하반기인 11월과 12월에는 소성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향후에도 치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보건소, 어린이 수두 예방 관리 강화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최근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수두는 발열과 수포성 발진을 동반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 또는 수포액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초등학교생에게 주로 발생하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빠르게 확산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진이 발생하고 최소 5일간 전염력이 유지되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증상이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 등원이나 등교를 자제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두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시 휴지나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남원시 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과 교구 및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두에 감염된 경우 회복될 때까지 등원·등교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2명 이상 유행 사례 발생 시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청하면, 'Cafe청하' 북카페 개소

청하면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청하면민의 따뜻한 소통과 문화공간인 'Cafe청하' 북카페가 문을 열었다.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27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afe청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Cafe청하'는 기존 시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모델링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청하면은 이곳을 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의 소중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제=곽태 기자

어르신 섬김으로 새해 첫 봉사 시작

전북자보센터, 병오년 어르신 섬김행사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에서 2026 병오년 어르신 섬김행사를 개최하고, 새해 자원봉사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도내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해 '어르신과 함께 여는 희망찬 전북특별자치도'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광부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공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새해를 맞아,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떡국 및 명절음식 나눔, 방한용품 전달 등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상생과 배려의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가래떡 커팅식을 비롯한 신년 다짐 행사에 참여했으며, 문화공연과 떡국 나눔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권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자원봉사센터 비전선포에 발맞춰 자원봉사 가치 확산과 인정,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등 K-자원봉사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께 감



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실현을 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광부 노인회 부회장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전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 간 연대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호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어르신 섬김행사는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협력해 효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라며, "병오년 한 해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졸업맞이 발전기금 기탁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미네르바학부 기술경영공학과 졸업생 최지원(22학번), 서원철(22학번), 이용희(23학번), 송명진(24학번) 동문이 졸업을 맞아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뜻을 담아 대학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재학 중 함께한 캡스톤디자인 성과에서 비롯된 나눔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네 명의 동문은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한 팀으로 만나 '스마트 전통 짬이식 열매 수집기'를 공동 개발했으며, 해당 작품으로 2025년 미네르바 학술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교의 실무 중심 교육과 미네르바 학술대회가 학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직접 체감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발전기금 기탁으로 실천하게 됐다. /김재훈 기자



남원 여성새일센터, 올 첫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여성새일하기센터에서는 27일부터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다짐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 정보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첫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역량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을 목표로 노동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구직 설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27일부터 29일까지 제1기를 시작으로 총 20회 실시, 수료자 200명을 목표로 참여 희망자를 수시로 모집하여 월 2회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고수면 파크골프클럽, 이웃돕기 성금 전달

고창군 고수면 파크골프클럽(위원장 최광웅)이 최근 고수면 주민행복센터를 찾아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고수면 복지하브하 기금'으로 적립되어 사각지대 위기가구 긴급 구호와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단순 지원을 넘어 고수면민의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광웅 위원장은 "회원들과 함께 흘린 땀방울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파크골프클럽은 단순한 스포츠 동호회를 넘어, 지역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성룡 위원장은 "매년 잊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파크골프클럽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소중한 기탁금이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가족 초청 결혼이민자 교육

김제시는 27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초청 결혼이민자 127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 절차 및 주요 개정 사항 등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농촌 일자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2촌 이내) 가족 초청 및 MOU 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 779명을 도입할 예정으로 농가형 계절근로자 679명과 공공형(농협) 계절근로자 1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제=곽태 기자

전북 서남권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전주 새강병원 개원

AI·자동화 의료기기 대거 도입

전주시 평화동에 새강병원이 지난 28일 개원했다. 이로써 전북 서남권 지역 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르면, 새강병원은 전북권 병원 중에서도 최신식 의료기기와 AI·자동화 의료기기를 대거 도입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진은 정형외과, 척추외과, 응급외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재활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10여개 진료과를 1차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상해외과 등 계속적인 진료과를 증원할 예정이다. 내과계, 외과계, 응급외과, 영상의학과 등이 병원안에 집결해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는 필요 없이 협진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며 수술부터 재활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하다.

이러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강병원은 5개의 수술실과 2개의 하이브리드 수술실, 4개의 음압 격리실을 갖추고 MRI, CT 등 최신의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또 중환자실 19병상을 포함한 총 20개 병상을 확보했다. 점차적으로는 277병상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새강병원은 환자 안전법 등에 맞춰 4인실, 2인실, 1인실로 구성됐다. 특히 도내 병원 최초로 VIP 병실을 구비했다. 특히 응급외과와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각 진료과와



긴밀하게 협진하는 시스템을 갖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 또는 대학 병원에서 이송하던 중증의상 환자 역시 앞으로는 새강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전망이다.

새강병원의 또다른 특징은 스포츠 재활센터다. 전문현대 팀 다터와 2군 전담 의료진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엘리트 선수를 비롯한 다양한 재활치료 환자들의 빠른 사회의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새금강 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남전주 IC에서 병원까지 10여분 만에 도착이 가능해 군산 및 전북 서부지역의 환자들도 빠른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는 강점이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창의·예술·체육·인문 프로젝트로 청소년 역량 키운다

장수교육지원청, 달빛 겨울열기 프로젝트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장수청소년꿈터 달빛과 관내 교육시설에서 2026년 겨울방학 달빛겨울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의·예술 중심 특강과 프로젝트형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과 창의적 역량을 함양하고, 장수청소년꿈터달빛 청소년주도프로젝트 동아리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청소년 대상 창의예술미래공간인 장수청소년꿈터 달빛의 운영 취지에 일맞게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분야 프로그램을 개설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생 144명이 참여한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컴퓨터 자격증 단기 숙성 프로젝트(ITQ) △중·고등학교 밴드(락밴드 스쿨) △중·고 독서토론 △우리 고장 장수문화 톨아보기(백용성·정인승·전해산·박준실 기념관 현장체험) △제과제빵 △초등 인문학 토론 △의료보건(CR 마스터 프로젝트) △통기타 △당구 △배드민턴 △농구 등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특히 배드민턴 프로그램은 장수종합실내체육관 및 한누리전당 산단관에서, 농구 프로그램은 장수고등학교 및 장수초등학교 강당에서 운영되는 등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한 운영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장수문화 톨아보기 프로젝트는 지역의 역사·인물 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추영곤 교육장은 "달빛겨울열기프로젝트의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



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청소년 중심 겨울방학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장수청소년꿈터 달빛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도형 창의·예술·체육·인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주도프로젝트 동아리와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마을교육생태계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알림

▲문화예술복지대상 시상식 및 신년인사회= 일시: 31일 오후 5시, 장소: 백송회관 3층 연회장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주관: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